

은행 합병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Banking M&A
- A Case study on U. S. and Japan -

이 유 (Yi, Yu)*
위 용 석 (Wui, yong-suk)**
오 기 현 (O, gi-hyun)***

논문접수일 : 97. 12

게재확정일 : 97. 12

목 차

I 서 론	IV 효율적인 은행합병 방안
II 은행합병의 실질적 성과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III 미국 및 일본의 은행합병 효과 분석	<참고문헌>

I. 서 론

금융기관의 합병은 198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종 금융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되면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과 지역적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여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촉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는 은행업의 장치산업화의 가속화와 거품경제 붕괴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로 인하여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은행간 합병이 적극 추진되었으며, 대형은행간 합병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와 같이 은행간 합병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규모의 대형화를 통하

*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 성화전문대학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여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경영합리화 등으로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은행들의 경영전략도 예금 및 대출규모 증대 등과 같은 기존의 양적성장 위주에서 은행간 합병, 신규사업 진출 및 조직재편 등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목표로 전환되고 있다.

은행의 합병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매수은행의 경영자가 피매수은행 경영자보다 유능하여 피매수은행의 재무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피매수은행을 통해서 자금조달 원이나 수익원을 분산시킬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합병된 은행은 보다 큰 기관으로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성취할 수 있고, 합병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증가시키고 경쟁을 감소시켜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안의 한 유형으로서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은행합병에 관련된 사항 및 미국, 일본 등의 금융기관 합병사례에서 나타난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규명해봄으로서, 국내에서의 성공적인 은행합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은행합병의 효과 분석

1. 은행합병의 실질적 효과분석

은행합병, 매수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효과로는 비용절감, 주식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반응 등을 들 수 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합병 은행들간에 상품 또는 시장의 중복을 제거하여야 하며, 통합 이후 경영책임을 분명히 할 단일 최고경영자나 본부가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은 전통적인 관행이나 전략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기관은 피매수기관보다 규모가 크거나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고 과다한 매수가격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최근 은행통합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Berger와 Humphrey(1992)는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의 은행합병자료를 이용하여 은행통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합이 은행의 성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은행통합의 가장 가능성있는 편익은 규모나 범위의 경제도 아니고 단지 경영의 개선이라고 지적하였다.

Linder와 Crane(1992)는 통합된 은행은 통합이후 처음 2년 동안은 다른 은행과 비교해 볼 때 영업이익에서 유의적인 개선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ody와 Crane(1991)은 1971년부터 1987년까지의 은행지주회사를 분석하여 수익성과 은행규모사이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심지어 대형은행이 소형은행보다 높은 실패율을 보였다고 하였다.

국내은행의 대형화와 합병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요인으로는 다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은행산업의 개편을 주도할만한 선도은행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외국의 대형은행들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경쟁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은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도은행의 역할은 은행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변화를 주도하여 다른 은행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있으므로, 선도은행의 의미는 질적인 면에 있는 것이며 규모면에서 선도은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형 시중은행들과 특수은행들은 규모면에서나 경영내용면에서나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도은행 없이 신속한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거나 경쟁을 통하여 선도은행이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합병은행으로 하여금 구조개혁을 불가피하게 하고, 합병은행의 성과가 다른 은행에게 과급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전략적 측면에서 주목된다.

<표 1> 세계 1,000 은행에 있어 우리나라 은행의 위치 (단위 : 백만달러, %)

	Tire One Capital		자산규모		자본-자산 비율		자본 수익률		총자산 수익률	
	규모	순위	규모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한 일	1,943	130	22,286	231	8.72	169	9.3	601	0.79	416
한국산업	1,822	138	28,162	188	6.47	365	1.7	793	0.11	829
신한	1,89	143	10,021	402	17.856	25	10.8	549	1.77	100
제일	1,726	145	27,445	194	29	393	11.0	536	0.66	470
한국상업	1,693	149	29,548	181	5.73	469	8.2	645	0.46	579
조흥	1,645	152	23,172	223	7.10	285	8.3	642	0.57	503
서울신	1,506	168	23,414	222	6.43	370	6.6	701	0.41	616
한국외	1,422	177	26,237	200	5.42	514	10.0	575	0.49	555
수출입	1,06777	214	4,769	609	22.38	17	10.0	580	2.07	68
신용	5	286	8,994	430	8.62	175	11.5	517	0.95	362
동화	670	323	3,789	692	17.63	26	5.0	749	0.85	395
정보	548	275	3,113	762	17.60	27	-	-	0.64	479
대우	546	377	4,643	614	11.76	73	8.6	629	0.99	342
경남	481	411	5,531	558	8.70	171	10.3	565	0.88	385
중소기업	457	427	16,034	286	2.85	920	10.3	568	0.28	729
경남	437	448	4,297	635	10.16	107	9.1	608	0.91	376
광주	400	469	2,741	805	14.61	45	6.4	718	0.84	399
국부	388	481	16,789	274	2.31	960	30.1	80	0.64	478
부동산	383	488	6,421	512	5.97	440	6.4	712	0.37	657
하남	356	511	2,115	884	16.81	29	36.32	43	5.04	14
전북	351	514	1,629	949	21.57	18	8.9	621	1.88	88
한미	348	519	3,303	743	10.55	95	12.2	486	1.25	244
충청	311	559	2,347	862	13.25	53	10.4	563	1.33	211
동남	299	577	1,973	899	15.14	40	3.6	767	0.53	532
대동	294	586	1,298	975	22.65	16	1.8	792	0.41	619
한국주	272	623	14,398	310	1.89	976	20.3	236	0.36	662
강원	228	693	1,811	923	12.58	57	9.3	599	1.15	282
충북	158	854	1,398	970	11.30	83	11.8	504	1.26	239

주 : 신탁계정은 제외하였으며, 장기신용은행, 대구, 부산, 전북, 충청, 주택, 충북은행은 93년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은행은 94년 6월말 현재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국내의 금융시장에서의 외국 대형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대형화가 필요하다면,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 은행산업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실물경제규모에 대한 은행산업규모의 상대적 크기(은행 자산총액/GNP)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1.06으로 미국의 0.46과 캐나다의 0.96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OECD 주요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65%로 스페인(1.32) 캐나다(0.99) 호주(0.88) 대만(0.85)보다는 낮으나, 일본(0.33) 미국(0.57) 독일(0.38) 영국(0.45)보다는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규모는 세계 자산규모 1위인 일본의 第一勸業은행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형시중은행들의 자산규모는 1,000대 은행중 대부분 180~230위에 있으며, 지방은행으로는 부산은행 512위, 경기은행 558위로부터 충북은행 970위까지 위치하고 있으며, 신설은행으로는 보람은행이 76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표 2>와 같이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선진국들의 은행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나 수익, 생산성 측면 등 전부분에서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2> 주요국 4대 은행 규모 비교

	자 본 금 (백만달러)	자 산 (백만달러)	이 율 (백만달러)	직원수 (명)	①/④ (천달러)	②/④ (천달러)	③/④ (천달러)
<한 국>							
한일은행	1,943	22,286	177	9,596	202	2,322	18
한국산업은행	1,822	28,162	31	2,606	699	10,807	12
신한은행	1,789	10,021	177	3,633	492	2,758	49
제일은행	1,726	27,445	182	9,276	186	2,959	20
<일본>							
住友은행	16,890	427,102	1,792	17,211	981	24,816	104
第一勸業	15,992	445,707	1,420	18,703	855	23,831	76
富士은행	15,172	418,956	1,341	15,762	963	26,580	85
三和은행	14,845	411,704	1,564	14,151	1,049	29,094	111
<미국>							
Citicop	6,813	215,355	-221	94,601	72	2,276	-2
Bank America	6,593	114,004	1,873	54,639	121	2,097	34
Nations Bank	5,601	109,944	108	57,177	98	1,923	2
JP Morgan	5,575	102,416	1,485	13,323	418	7,687	111
<독일>							
Deutsche	11,258	296,226	2,280	71,400	158	4,149	32
Dresdner	6,473	194,488	867	44,217	147	4,398	20
Commerzbank	5,536	149,506	718	28,226	196	5,297	25
Hypo Bank	3,882	127,376	508	15,345	253	8,301	33
<영국>							
Barclays	11,637	258,339	997	111,400	104	2,319	9
Net West	10,453	229,272	251	102,400	102	2,239	2
Abbey	5,557	107,379	1,156	16,464	70	6,522	70
Nationa	4,822	95,971	1,291	71,723	18	1,338	18
Lloyds							

주 : Tier One Capital 기준으로 4대 은행

The Banker(July 1993)의 자료를 이용하여, 합병을 통해 도달 가능한 은행의 세

계순위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6개 대형시중은행들을 하나의 은행으로 합병할 경우, 자산규모는 152,102백만달러가 되어 세계 33위 은행에 해당하며, 덴마크의 사례와 같이 6대 시중은행들을 두 개의 은행(자산규모로 1위+3위+6위, 2위+4위+5위 은행)으로 합병할 경우, 자산규모로 세계 76위와 80위에 해당하는 두개 은행의 출현이 가능하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시중은행과 도매금융전문은행을 합병할 경우, 자산규모로 세계 107위 수준의 은행의 출현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도매금융, 소매금융 및 해외영업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은행들을 하나로 합병한다면 이 은행의 규모는 자산규모로 세계 61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형화 그 자체가 합병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는 없다. 극단적인 가정으로 우리나라 6개 대형 시중은행을 합병하여 자산규모 세계 33위의 대형은행을 출현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력과 우리 은행산업의 세계금융시장에서의 위치에 얼마나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즉, 자산증가 측면에서 초대형 은행이 출현한다고 할지라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은행은 선도 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은행의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자본의 건전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같이 점포와 인력의 감축을 통한 경비절감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영업망의 상호 보완적 효과도 미약하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합병은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하는 데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조직갈등 등 합병의 휴유증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이상적인 은행산업의 재편과정은 금리자유화와 업무영역의 확대 등 은행간 경쟁범위를 확대시킨 후, 경쟁을 통해 은행간의 우열이 들어난 다음 이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은행이 “살아남는 전략”으로 합병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과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 조정과정은 구조조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구조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은행의 경쟁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여건하에서 합병을 하는 경우,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조직 갈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한 합병은행의 선택에 있어 건전한 은행간에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강력한 선진은행을 출현시킬 수는 있으나 나머지 은행들과의 경쟁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 반면에 건전한 은행과 부실정도가 높은 은행을 합병하는 경우보다 규모가 큰 건전한 은행을 출현시키기 보다는 부실한 은행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은행산업 전체로는 건전한 은행을 하나 상실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 <표 3>은 대형시중은행, 대형특수은행, 중소은행 및 지방은행들을 합병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한 표이다.

<표 3> 합병형태별 장, 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대형시중은행 + 대형시중은행>	
기업 문화, 영업방식, 부실정도가 비슷하므로 합병이 용이함.	점포의 중복으로 점포조정비용이 높음. 인화의 애로.
<대형특수은행 + 대형특수은행>	
기업 문화, 영업방식, 부실정도가 비슷하므로 합병이 용이함. 특수 업무의 결합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기대.	시중은행간의 결합에 비하여 규모의 경제성 미약.
<대형시중은행 + 대형특수은행(민영화)>	
특수은행의 소매금융과 시중은행의 도매금융기능의 결합으로 인한 범위의 경제성 기대.	업무 취급방식의 차이, 기업문화의 차이로 인한 인화애로. 상당기간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규모의 경제성 미약.
<대형은행(시중 또는 특수) + 중소은행>	
근년에 신설된 중소은행들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위의 경제효과가 큼(소매금융위주의 대형은행 + 도매금융위주의 중소은행)	규모의 경제성 미약.
<지방은행간 합병>	
규모의 경제성 효과가 큼.	지역성으로 인해 인화가 어려움.

또한 소매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점포정리와 인력감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이를 전제하지 않는 한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며, 현재의 규모로도 외국은행에 대응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반면에 도매금융과 외환부문에서는 규모의 대형화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바, 도매금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합병은행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미국의 은행 합병 효과분석

미국에서의 은행합병은 80년대 초반까지는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한 방어적인 합병 또는 흡수합병이 주류를 이루었다. 미국의 은행들은 70년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화해온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신흥공업국가들의 외채위기와 미국 내의 농업불황과 에너지산업의 개편으로 인한 자금난에 노출됨으로서 미국 은행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금융기관들의 도산이 속출하였으며, 이 시기에 미국 은행들은 합병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은행합병에 대한 규제완화에 힘입어 미국 은행의 합병건수는 매년 평균 616건에 달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 특이한 현상은 이전의 흡수합병 형태가 아닌 대형 상업은행(money center bank)간의 합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88년 7월 이후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등에 따라 합병을 자기자본을 확충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한 결과이며, 주간 영업규제 완화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지역점포망을 통하여 전국은행(super regional bank)을 지향하는 합병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¹⁾

그러나 최근들어 미국 은행들이 합병전략 및 동기는 방어적인 것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것으로 크게 변모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소매금융과 도매금융의 합병정도에 한정되던 이종업종간의 은행합병이 은행업무를 벗어나 증권업무, 외환업무 등에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 은행들의 합병 붐이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업무 다각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미국 은행들의 합병은 미국내에서 매수 합병이 금융기관의 주요한 경영전략으로 부상함에 따라 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4년 9월 은행지주회사들이 다른 주의 은행을 매수할 수 있는 법률(Interest Banking and Branching Efficiency Act of 1994)의 제정에 이어, 겸업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글래스-스티걸법이 개정되면 은행산업의 재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미 연방준비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도산, 합병 등으로 2010년까지 미국 은행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6,000~7,000개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0년대 이후의 미국 은행들의 주요 합병사례를 합병동기 및 유형별로 살펴보면 < 표 4>와 같다. 합병동기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모든 은행들의 합병은 경비절감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며, 점차 업무다각화, 전국은행지향의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다.

<표 4> 90년대 이후 미국은행의 주요 합병사례

합병연도	합 병 은 행	합병동기 및 목표	합 병 유 형
91년 7월	케미컬 + 매뉴팩추어즈 →케미컬	경영합리화, 규모의 경제 실현	흡수, 중복형 합병
91년 7월	NCNB + C&S Sovran →내이션즈	경영합리화, 전국은행화	대등, 비중복형 합병 (지리적 확대형)
91년 8월	BOA + 시큐리티퍼시픽 →BOA	경영합리화, 업무다각화	흡수, 비중복형 합병 (업종통합형)
95년 6월	퍼스트유니온 + 퍼스트피테리티 →퍼스트유니온	경영합리화, 업무다각화	흡수, 비중복형 합병 (업종통합형)
95년 8월	케미컬 + 체이스맨허턴 →체이스맨허턴	경영합리화, 규모의 경제 실현	대등, 중복형 합병
95년 9월	내이션즈 + 사우스은행 →내이션즈	경영합리화, 전국은행화	흡수, 비중복형 합병 (지리적 확대형)

1) 그 대표적인 예로, NCNB와 C&S Sovran이 합병을 통하여 자산기준 미국 3위의 은행인 내이션즈 은행(Nations Bank)으로 부상하였고, 지속적인 매수합병으로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뱅크원(Bank One Corp.)을 들 수 있다.

경비절감, 인원감축 등 경영합리화 내지 대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 합병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케미컬은행의 90년대 이후의 2차례에 걸친 합병을 들 수 있다. 케미컬은행은 91년 7월 매뉴팩처어즈 하노버은행과의 합병으로 미국에서 6위권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며, 80개의 점포폐쇄와 합병 다음 연도인 92년에만 3,500여명의 인원을 감축한 바 있다. 또한 동 은행은 95년 8월 미국내 자산규모 4위인 체이스맨허턴은행과 합병을 발표함으로써 미국내 최대은행으로 탄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600여개의 점포폐쇄, 전체 직원의 16% 감축 등으로 고정비용 절감효과가 15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합병을 통하여 지역적인 영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대형화 뿐만 아니라 전국은행화에 성공한 사례로는 내이션즈은행과뱅크원이 대표적이다. 내이션즈은행은 91년 노스캐롤라이나 내셔널은행(NCNB)과 C&S Sovran은행과의 합병으로 워싱턴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광대한 영업망을 구축하게 되어 미국내 최대의 전국은행으로 되었다. 또한 동 은행은 95년 9월 미국 남동부지역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우스 은행(South Bank)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지역적 영업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오하이오에 거점을 두고 있는뱅크 원(Bank One)은, 91년 초 11개 은행을 매수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은행의 흡수를 통하여 89년말 미국내 25위 은행에서 95년 현재 9위의 은행으로 성장하였다.

업무다각화를 지향하는 합병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91년 8월의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시큐리티 퍼시픽 은행(Security Pacific)의 합병, 95년 6월 퍼스트 유니온 은행(First Union Corp)과 퍼스트 피델리티 은행(First Fidelity Bank)의 합병을 들 수 있다.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부동산 부실대출로 고전하던 시큐리티 퍼시픽을 합병함으로써 증권, 보험 등 비은행업무를 확대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증권업무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었던 퍼스트 유니온 은행은 퍼스트 피델리티 은행과의 합병을 통하여 소매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미국은행들은 합병을 통하여 상당한 경비절감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예로 케미컬은행은 매뉴팩처어즈 하노버은행과의 합병전 70%를 상회하던 경비율이 94년에는 63.6%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1년 합병한 케미컬은행과 내이션즈은행의 예를 보면 미국은행들의 합병은 양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이익 규모는 합병 다음 연도에는 대표적인 증가세를, 그 이후에는 순조로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ROA추이도 9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전체 상업은행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93년 내이션즈은행의 순이익 규모 및 ROA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것은 증권사인 레이놀즈(Reynolds Corp)사 인수에 따른 총자산의 증가 및 합병비용의 발생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합병 이후 미국은행들이 경영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합병전에 비하여 부실채권의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표 5> 미국 주요은행의 합병후 수익성 추이

구 분		단 위	1991년	1992년	1993년
케미컬 은행	총자산(A)	백만달러	138,930	139,655	149,880
	순이익(B)	백만달러	154(-0.5)	1,086(+605.2)	1,604(+47.7)
	ROA(A/B)	%	0.11	0.78	1.07
내이션즈 은행	총자산(A)	백만달러	110,319	118,059	157,686
	순이익(B)	백만달러	202(-0.5)	1,145(+466.8)	1,301(+13.6)
	ROA(A/B)	%	0.18	0.97	0.83
전 체 상업 은행	순이익	백만달러	17,933(+14.0)	31,331(+74.7)	42,966(+37.1)
	ROA(A/B)	%	0.53	0.92	1.20

3. 일본의 은행 합병 효과분석

일본은행들의 합병은 주로 점포망, 자산 등 양적인 규모를 확장하는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비용절감이라든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합리화시책을 병행한 미국 은행들에 비해 일본은행들은 합병의 성과면에서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 은행들이 합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실물경제의 성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이다. 일본 은행들의 합병은 국제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대형화의 일환으로 합병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동 시기에는 주로 업무영역과 규모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도시은행간의 중복형 합병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90년대초까지도 양적인 규모확대에 치중된 이러한 일본은행들의 합병은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병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금리자유화 진전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형은행과 부실은행간의 합병,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대형은행간 합병이 계속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제 3차 온라인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한 합병도 적극 추진되었다.

최근의 동경은행과 미쓰비시은행의 합병을 계기로 일본 은행들이 합병동기도 점차 업무다각화 등 질적인 측면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일본은행들이 규모면에서는 세계 수준이지만 수익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92년 금융개혁으로 자회사설립을 통한 금융기관간 상호업무 진출이 허용되면서 점차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일본 은행들의 합병은, 40조엔을 상회하는 부실채권, 금융 자유화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구제합병의 형태가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행들의 합병사례를 보면 대부분 양적인 규모확대에 치중한 합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비절감형의 경영합리화 성격의 합병에서 출발한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특수한 고용관계로 인한 인원감축의 어려움으로 주로 합병을 대형화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대형화를 위한 합병사례는 71년의 다이이치은행과 칸쿄은행의 합병과 90년 중위권은행들인 미쓰이은행과 타이요코베은행의 합병이다. 이들의 합병으로 생겨난 다이이치칸쿄은행과 사쿠라 은행은 현재 자산규모에서 각각 세계 3위 및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일본 은행의 주요 합병사례

합병연도	합 병 은 행	합병동기 및 목표	합 병 유 형
71년 10월	다이이치칸쿄은행+니혼칸쿄은행 → 다이이치칸쿄은행	규모의 경제실현	대등, 중복형 합병
73년 10월	타이요은행+코베은행 → 타이요코베은행	규모의 경제실현	대등, 중복형 합병
90년 4월	미쓰이은행+타이요코은행 → 교와사이타마은행	점포망확대	대등, 중복형 합병
91년 4월 (1차)	교와은행+사이타마은행 → 교와사이타마은행	규모의 경제실현	흡수, 중복형 합병
91년 4월 (2차)	교와은행+사이타마은행 → 교와사이타마은행	지리적 기반 확대 규모의 경제실현	대등, 중복형 합병 (지리적기반확대형)
95년 3월	도쿄은행+미쓰비시은행 → 도쿄미쓰비시은행	업무 다각화	대등, 비중복성 (업종 통합형)

반면 단순한 대형화의 추구에서 벗어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합병사례로는 95년 3월 합병을 발표한 동경은행과 미쓰비시의 합병을 들 수 있다. 미쓰비시은행은 일본내 점포망이 많고 도매금융에 강점이 있는 반면 동경은행은 해외점포망이 많은 외환업무에 강점이 있어 이들 은행의 합병은 겸업은행체제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7> 사쿠라은행과 아사히은행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합병전년도	1991년	1992년	1993년
사쿠라은행	예 금	24.7	18.6	19.0	19.2
	대출금	20.1	17.6	16.8	16.2
아사히은행	예 금	12.7	10.5	10.5	10.9
	대출금	9.8	9.5	9.5	9.2

그러나 기존의 일본 은행들의 합병은 양적인 규모확대 지향적임에 불구하고 자산규모 이외의 시장점유율을 측면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표 7>를 보면 사쿠라은행과 아사히은행의 경우 양 은행 모두 전체 도시은행에 대한 예

금과 대출금의 비중이 합병전의 모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표 8>은 일본 은행들의 합병에 의한 경비절감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은행들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의 형태와 고용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은 전통적으로 종신고용제의 채택으로 직원의 해고가 용이하지 않는 폐쇄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합병후에도 인원삭감을 통한 인건비의 절감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91년 4월 합병으로 탄생한 아사히은행의 예를 보면 합병 2년후인 94년 3월말 현재 총경비는 92년 3월말에 비해 0.3% 감소한데 불과하며, 사쿠라은행의 경우에는 오히려 0.8%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의 사쿠라은행과 아사히은행의 인원삭감폭은 각각 2.8%, 4.1%에 불과하여 케미컬은행이 합병후 다음연도인 92년 한해의 인원삭감폭이 8%에 달한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표 8> 사쿠라은행과 아사히은행의 합병후 경비절감 추이 (단위: 억엔, 명, %)

구 분	사쿠라 은행			아사히 은행		
	92년 3월	94년 3월	증 감 율	92년 3월	94년 3월	증 감 율
경 비	4,490	4,524	+0.8	2,082	2,794	-0.3
인건비	2,224	2,272	+2.2	1,325	1,276	-3.7
총인원	21,968	21,346	-2.8	13,621	13,069	-4.1

이에 따라 인건비도 아사히은행은 3.7% 감소한데 그치고 사쿠라은행은 2.2% 증가하였다. 한편 수익성부문에 있어서도 일본 은행들은 합병후에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수익성이 개선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표 9> 사쿠라은행과 아사히은행의 합병후 수익성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사쿠라 은행			아사히 은행			도시 은행 전체		
	92.3	94.3	증감율	92.3	94.3	증감율	92.3	94.3	증감율
순이익(A)	901	349	-61.3	380	208	-45.3	6,476	3,184	-50.8
총자산(B)	596,029	541,346	-9.17	299,700	282,786	-5.64	3,289,140	35,327,721	+1074
ROA(A/B)	0.15	0.06	-	0.13	0.07	-	0.20	0.01	-
경상이익	1,621	630	-61.1	856	306	-64.3	14,263	5,631	-60.5

사쿠라은행과 아사히은행의 합병 한 후 2~3년이 지난 94년 3월말까지 수익성의 증감을 보면 <표 9>와 같다. 두 은행 모두 경상이익, 순이익 규모에서 다른 도시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의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총자산 규모의 감소에 따라 ROA수준에 있어서는 94년 3월말 현재 도시은행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은행들은 미국경제의 회복을 기반으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반해, 일본 은행들은 버블경제의 붕괴, 부실채권의 증가 등에 따라 합병의 이점을 제대로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94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본 11개 도시은행 전체의 순이익 규모는 미국 10대 상업은행의 140억달러의 1/5 수준인 29억달러에 불과하다.

III. 우리나라 은행의 효율적 합병 방안

한나라의 경제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적정수에 대하여는 이론적인 검증이 없는 상황이나, 금융기관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금융서비스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반면, 금융기관간의 수가 과다할 경우에는 과당경쟁에 따라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국제경쟁이 필요한 적정규모의 유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8년 이후 대동, 동남, 동화, 하나, 보람, 평화 등 6개 시중은행이 신설되었는데 이 중 2개(하나, 보람)는 1991년 3월에 제정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시중은행들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반면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불건전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76년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 이후 우리나라에서 은행간 합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금융의 세계적 통합화가 진전되고 국내 자본시장에의 개방이 불가피해진 90년대 부터였다. 정부는 91년 3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시장의 효율성제고를 주 목적으로 합병 및 전환에 따르는 인허가절차의 일원화 및 간소화, 합병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은행법상 주식제한 소유 규정 특례인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따라 단자사의 은행 및 증권사로의 업종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당시 금성투금과 한양투금의 합병으로 보람은행이 발족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국내 최초의 은행간 합병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신탁은행의 합병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첫째, 기업합병시 일반적인 절차인 상대은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에 의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서 인수은행(서울은행)은 그 지시를 수행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둘째, 구체성격의 합병이었다. 서울은행은 비록 후발은행으로서 기존 시중은행과 경쟁하기에는 규모면에서 다소 열세에 있었으나, 당시 서울은행에 대한 평가는 우량한 은행이었다. 그러나 한국신탁은행은 신탁업무의 전문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하여 수신면에서는 크게 발전하였으나, 금리변동 및 자금운영의 미숙으로 부실은행이 되었다. 이와같은 양 은행의 합병을 통하여 서울은행으로 하여금 한국신탁은행의 부

실경영을 해소하게 하며, 신탁경영이라는 업무특점권을 활용토록하여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려 한 것이다.

셋째, 정부주도의 합병이었다. 자율적인 양은행의 결정 및 동의에 의한 합병이 아닌 정부의 전격적인 합병발표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격상 정부주도의 합병이며, 이후 합병업무추진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등 정부의 의도대로 합병대상은행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신탁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은 수익성측면에서는 합병의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10>을 이용하여 합병 후의 성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합병 전후 3년간만을 대상으로 한 재무비율분석은 합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10> 서울신탁은행과 4개 시중은행의 비교표 (1973-1979, 합병 전후 3년간)

	서울신탁은행		시중은행평균치		시은 평균 값안후		
	합병전	합병후	합병전	합병후	합병전	합병후	증감
자산이익율	0.29	0.76	0.35	0.43	-0.06	0.33	0.39
자본이익율	7.44	21.21	15.93	17.16	-8.53	4.05	12.58
자본금비율	3.19	2.53	1.87	1.72	1.32	0.81	-0.51
비용/수익비율	96.7	88.19	92.74	89.83	3.96	-1.64	-5.06
대출수익율	14.93	14.55	13.11	15.17	1.82	-0.62	-2.44
대출금점유율	39.74	38.59	42.93	33.86	-3.19	4.73	7.92
유동성비율	25.27	22.80	25.62	27.64	-0.65	-1.84	-4.19
자산성비율	38.60	29.92	36.32	36.40	1.98	-6.48	-8.46

자료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73~79.

그러나 경영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중규모의 시중은행인 서울은행을 국제화, 대형화, 능률화라는 미명하에 부실경영에 시달리고 있던 한국신탁은행을 정책적으로 합병시킴으로써 관치금융하에서 양행은 정부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병시 필수적인 절차인 인수대상 기업의 강약점을 파악하는 등의 평가과정이 생략되어 합병이 양행의 장기적인 경영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인력의 재배치 및 직원간의 융화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서울신탁은행의 경우에도 인사관리에서 과잉인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시중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규모에 비해 직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합병후 인원조정에 실패하였다. 더 나아가 양행소속의 일치감 조성에도 능동적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경영전략의 수립 및 운용측면에서 보면, 합병후 경영전략수립은 향후 목표설정 및 합병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단시일내 해소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동행은 이러한 업무를 각각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토록 하다가 합병후 7개월만에 합병조정부를 설치하여 동부로 하여금 합병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는 바, 합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진이 안이하게 합병을 대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

다.

앞의 해외 은행합병사례로부터 볼 수 있듯이 M&A에 대한 문제요인과 국내환경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장애요인을 고려할 때, 국내은행 및 금융정책당국은 M&A를 다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M&A를 추진할 경우, M&A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요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합병을 수행하는데 있어 M&A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성공적인 은행들은 합병전의 주요고객들이 원활하게 합병은행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피합병 은행의 고객을 합병은행으로 이전하기 전에 업무기능을 먼저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합과정 중에는 양쪽의 일선 영업 업무를 지속하며 전체고객 중 가장 중요한 고객 10%를 대상으로 관계유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V. 대응방안 및 요약

세계금융시장의 자유화, 통합화, 증권화의 진전속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여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은행이 취해야 할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리자유화 등으로 인한 수익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익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업종간 업무영역의 제한과 지역제한의 규제완화로 넓혀진 사업영역 가운데서 비즈니스 영역을 설정하고 전개방향을 선택하는, 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현재의 취약한 경쟁력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업에게 금융기관의 소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이에대한 문제점으로 대규모의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등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금융관련 국제협상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며 이에 따라 국가간에 서로 금융규제에 경쟁여건이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에 경쟁여건이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가 필요하며 소유규제도 예외는 아니다.

소유규제를 조정함에 따라 기업의 지배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면서 금융기관의 다각화, 대형화가 이루어져 국내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는 여건에 따라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소유규제는 더욱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향에서 정

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은행 대형화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은행산업의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가 성립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의 존재를 전제하는 경우, 대형은행은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낮은 금융중개비용으로 국민경제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대형은행의 존재는 대외적으로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진입 유인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이 제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는 어느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산업에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의 존재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산출물과 투입물에 대한 정의, 분석범위,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간 합병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은행산업의 과점화, 합병후 과별조성에 따른 발전저해, 효과적인 비용절감의 어려움, 기존고객에 대한 관리체계의 소홀함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M&A의 필요성과 그 가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담당자나 은행의 경영진등 미래의 M&A 관련 당사자들은 성공적인 M&A를 가로막을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한국 특유의 발생 가능한 장애요인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가능한 장애요인으로는 M&A를 통한 인원감축의 어려움, 소유 경영체제의 부재, 한국 특유의 과거 관계 중시 풍토 등을 들 수 있다.

해외사례로부터 볼 수 있는 M&A에 대한 중대한 도전요인과 국내환경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장애요인을 고려할 때, 국내 은행 및 금융정책당국은 M&A를 다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M&A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병에 대한 명백한 전략적 전망이 필요하고, 신중한 사전선택 및 합병후의 적극적인 통합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강력하고 통합된 리더쉽이 필요하다.

한국이라고 해서 M&A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더 큰 도전이 되리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라는 방법이 지금까지 한국의 은행들에게 익숙치 않은 까닭에 여전히 새롭고 커다란 도전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들이 M&A의 기법을 나름대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메가톤급의 대규모 은행간의 합병을 단행하기 보다는 소규모 기관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작으로 해서 M&A기법을 쌓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금융정책당국은 M&A 여건이 성숙되도록 시장경쟁원리 즉, 건전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은행이 성과가 뒤진 은행과 구별되고 그에 상응되는 보상을 받게 되는 시장 메카니즘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융정책당국은 M&A를 할 수 있는 은행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며, M&A에 물리적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 및 재무장벽들을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또한 규제완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거나, 적어도 현재의 속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은행 최고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더욱 명백한 책임을 지게됨에 따라 금융정책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탄탄한 자본력과 수익성이 뛰어난

몇몇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노력을 결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책당국은 이러한 몇몇 은행들간의 M&A를 초기에 지원해줌으로써 M&A에 요청되는 기법을 익히고, 은행들이 현저한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한국은행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정책 당국과 은행 모두에게 이제 M&A를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국내시장에서의 비능률, 기업고객들의 해외시장 활동증가에 따른 고도의 금융서비스 수요의 증가 및 금융규제완화의 진전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볼 때 국내 은행산업구조의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정책당국으로서는 M&A가 국내은행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불가결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95년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 합병에 따르는 각종 조세지원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은행의 자율적인 합병이 촉진되기 위한 제도상의 개선할 점은 많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합병의 인가요건을 명료하게 하고 합병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여야 한다.

(2) 상장금융기관간 신설합병시 상장을 허용하는 등 상장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3) 합병후 인원, 점포의 감축 및 부실채권 조기상각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4) 합병과정에서 채권자 및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필요시엔 추가적인 조세, 금융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M&A가 모든 은행들에게 일반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금융시장 자유화 시대에 이를 간과할 경우에는 은행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면 질수록, 리스트럭처링의 필요성과 M&A가 개별 은행들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 전반에 대해 엄청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주체만이 M&A가 줄 수 있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은행합병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투입, 산출 및 비용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비용함수 모형개발 등으로 각 은행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된 실질적인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 분석 결과의 현실성과 타당성이 구체화된 연구를 통하여 은행합병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는 최대화하며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세진, 「금융환경변화와 중금사 발전방향」, 부은경제, 1996년
- 김경수의,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국제금융연구회, 서울:경문사, 1996년
- 김병연외, 「외국의 은행합병 현황」,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창문사, 1996년
- 국은경제연구소, 「은행경영의 신조류」, 서울:국은경제연구소, 1993년
- 노택환, 김지수, 「기업의 합병/매수론」, 서울:영남대학교출판부, 1994년
- 맥킨지 금융그룹, 「은행의 전략혁신」, 서울:21세기북스, 1996년
- 유석형, 유석형, 「우리나라 은행경영의 현황과 과제」, 월간금융, 1996년
- 김훈, “금융 글로벌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 「금융」, 1996년 5월
- 나대호, “국내은행의 건전성제고 방안”, 「산업경제」, 1996년 4월, 55호
- 박영준, 전태홍,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동요와 우리경제의 대응방안”, 「산은조가 월보」, 1995년 5월, 474호
- 송병국, “우리나라 은행의 합병”, 「신한금융경제」, 1995년
- 신민영, “은행합병 성공의 열쇠”, 「LG주간경제」, 1995년 8월
- 서태중,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신한금융경제」, 1995년 5월
- 한국외환은행, “국제금융시장의 회고와 전망”, 「외환은행조사」, 1996년 1/4분기
- 박상규, “국내은행간 합병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전망”, 「서은조사」, 1996년 제6권 1호
- 이필상, “금리자유화와 은행의 대응방안”, 「월간금융」, 1995년 1월
- 이종갑, “금융구조 선진화를 위한 금융산업개편”, 「나라경제」, 1996년 4월
- 엄봉성, “금융기관 합병효과 및 과제”, 「금융포커스」, 96년 7월
- 김인기, 김장희, 「한국은행산업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 연구」, 연구논문, 금융 연구 5권 2호, 1991년 8월
- 김용식, 최치영, 「주요국의 은행합병」, 연구논문, 한국은행 조사 제1부, 1993년 9월
- 손승태, 「국내은행의 경영효율성 비교분석」, 연구논문, 한국개발연구원, 1993년 5월
- 양원근, 「우리나라의 합병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한국금융연구원, 1993년 6월
- 이기영, 최장봉, 「금융과 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 연구논문, 한국조세연구원, 1996년
- 함상문, 「자본자유화의 영향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한국금융연구원, 1995년
-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1995년 은행경영통계」, 통계자료 1994년, 1995년 각 은행 Annual Report

<외국문헌>

- BIS, "65th Annual Report" '96. 6
- Houston, Joel F. and Michael D. Ryngaert, "The Overall Gains from Large Bank Mergers", Journal of Bankig and Finance, '94
- The Banker, "The Top 1000 World banks" '96. 7
- Benston, G. J., The Sepration of Commercial and Investment Banking, London : Macmillian Press, 1990.
- Dimsdale, N. and M. Prevezer, Capital Markets and Corporate Governance, Oxford : Clarendon Press, 1994
- Johonson, Hazel J., The Bank Valuation Handbook-Amaket-Based Approach to Valuing A Bank, Chicago ; Bankers Pubrishing Company. 1993
- Forestieri, Giancarlo,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A Review of Resent Literature", OECD, Paris. 1993
- Monks, R. A. G. and N. Minow, Corporte Governance, Cambridge : Blackwell, 1995.
- Prowse, s. D., "Alternative Methods of Corporate Control in Commercial Banks, "FRB of Dallas Economic Review, 3rd Quater, 1995.
- Saunders, A.,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 Homewood, IL : Irwin, 1994.
- Sheshunoff Information Services Inc., Buying, Selling & Merging Banks, Austin, Texas : Sheshunoff Information Services Inc., 1994